

기고

최근주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계장



태풍과 바다 그리고 해양경찰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로 지구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데 강풍 저기압 강수 등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짐에 따라 인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이다.

북태평양 해상에서는 매년 30개 안팎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의 경우 20개의 태풍 중 2개가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하였고, 제19호 태풍 '솔릭'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강력한 태풍이 한 반도에 불어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와 각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제주도와 한반도의 인적·물적 피해를 막는데 아끼지

않았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중인 지난 8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계단에서 20대 여성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의 주산지인 완도, 해남, 진도 해역은 피해액이 200여 원을 육박한다.

인류문명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계장치를 동원해도 태풍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느낀다.

9월 북태평양 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 중, 우리나라 접근하는 비율은 전체의 11%라고 하니 1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 상륙하는 가을 태풍은 크기와 강도가 여름 태풍에

비해 작아도 피해는 더 크다고 한다.

가을 수확기를 앞둔 사과, 배 등 각종 농산물 그리고 바다에서는 전복을 비롯한 각종 어패류가 성장하여 출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재산피해가 여름 태풍에 비해 훨씬 더 막대하다.

해양경찰은 2014년 이후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바다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 소정방 폭포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해 사고 당일부터 경비함정과 특수구조대를 투입하여 주변 해상을 정밀 수색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를 찾

지 못하고 있다.

그 밖의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양경찰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태풍의 접근이 우리나라로 예상되면 장기 출어 조업선에 대해 가까운 항포구로 피항을 유도하고, 항포구에 정박중인 어선은 계류색을 보강하여 강풍과 파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어민들과 함께 행동하며, 3천톤 및 5천톤 대형 경비함정은 항포구로 피항하지 않고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태풍과 맞서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키며 국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다.

올 가을에도 태풍은 발생할 것이다.

가을에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빙거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자연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태풍이 한반도와 우리나라에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올 지라도 해양경찰은 그 속에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해 할 때까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社說

산재 부정수급 막아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이 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모두 101건으로, 규모는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03건이었고 규모는 446억 원이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정수급은 모두 2천351건, 적발 금액은 2천939억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사과농장 제조작업 중 예초기에 손가락을 다쳤다"며 산재 요양 신청을 한 A 씨의 사례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집에서 다쳐놓고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폭발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당했다"며 산재 보상 신청을 한 B 씨의 경우 사업주인에도 노동자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탄 것

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올해 1월부터는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했다.

지난 6월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조사 기법,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정부와 당국은 산재 부정수급을 원천차단에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何 遵 約 法

어제 하
쫓을 준
맺을 약
법 법

何 遵 約 法

▷ 뜻: 소하(蕭何)는 한고조(漢高祖)와 더불어 율령삼장(律法三章)을 정(定)하여 준행(遵行)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몇 해 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직접 소방서 생활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예외소드를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불, 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는 프로그램 기획의도 아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지만 정작 소방관인 나는 TV에서 같은 사투리 쓰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민망해지는 인간의 오묘

한 생체 반응이 부담스러운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시청을 꺼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됐다.

긴급하게 소방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로 길을 막는 등 시민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이 방영되고 있었다.

사고로 위기에 처한 부상자를 돕다 생긴 2차 사고로 인해 다리 절단 부상을 입은 시민의 그 절박하고도 긴급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 때

문에 다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시민의식 현실을 보고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수차례 경험해본 소방관으로서 정말 안타까웠다.

대조적으로 구급차 출동 시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막혀 있던 도로가 뚫리는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배가 됐다.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방송의 힘을 빌려 전면적으로 시민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도 가지게 됐다.

'골든타임'이란 단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라디오와 TV에서 한 주장을 단위로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시간대를 말한다.

높은 시청률을 통해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송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대다. 이러한 '골든타임'은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으로 재해석돼 소방서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화재도 5분 안에 초기진화를 실시하면 보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길지 않은 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봉성윤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민간)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